



■ 대형마트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시행 첫날 풍경

“모두 안전 위해” vs “밀어붙이기식”

QR·발열체크로 입장 지체
“불편해도 확산 막는다면”
“일상영역 확대는 과도해”
직원과 실랑이하는 고객도
방역패스 법원 판단 ‘촉각’

“불편하기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만난 60대 남성은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농수산물 유통센터, 백화점 등 3000㎡ 이상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확대됐다.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위반 횟수별로 개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입구에서는 제주안심코드 등 QR체크인을 먼저 진행하고, 직원이 백신접종 확인서를 한 명씩 확인한 뒤 발열 체크를 하고 입장했다.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받고 입장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백신접종 증명서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이들도 있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느라 입장이 지체되기도 했다.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 10일 신제주 이마트에서 입장 전 고객들에 대한 방역패스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장을 보러 나온 40대 여성은 “일주일에 4~5번 생필품을 구입하러 오는데 확인받아야 할 절차가 많아 졌다”며 “사람이 몰리다 보면 입장에서부터 오래 기다리게 돼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만난 50대 여성은 “출입구를 찾아 주차를 하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와야 해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불편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등 일상의 영역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상황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0대 여성 A씨는 “백신 안전성

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확인 수업을 들어야 해서 최근에 접종을 마쳤다”며 “지난주 2차 접종 완료 전까지 4주동안 3일에 한 번씩 PCR검사를 받으러 다녔다. 2차 접종 후에도 14일이 지나야 해서 다음 주까지 PCR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더 큰 문제는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한 점”이라며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트까지 확대한 것은 강제접종이나 다름없다.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세밀한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 주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분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다.

김도영기자

새해들어 하루평균 18명 확진

10일 오후 5시까지 13명
오미크론 확진 1명 추가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두자릿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5시까지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84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들어선 183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명, 해외입국자 1명, 타지역 관련 4명, 코로나19 유증상자 2명 등이다. 이

날 ‘서귀포시 초등학교2’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다.

또 이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도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신규 오미크론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 지난 8일 아일랜드에서 입도했으며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0일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오미크론 확진 통보를 받았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민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2.8%이며 3차 접종률은 38.7%다.

강다혜기자

장시간 사용한 전기장판 과열 추정 화재

새벽 시간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 사진

10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33분쯤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1층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전기장판과 라텍스 매트리스가 소실됐다.

불은 같은 아파트 3층 주민이 타는 낡새와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도착 전 1층 거주자가 진화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시간 켜 놓은 전기장판과 라텍스 매트리스 사이에 열이 축적되며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조카 회사에 방화 시도

조카가 다른 이에게 일을 맡겼다는 이유로 방화를 시도한 40대 삼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4시9분쯤 조카 두 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일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애월 해안서 상괭이 사체 발견

지난 9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괭이 사체가 발

견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지자체에 인계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에서 발견한 상괭이는 총 5마리로 모두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김도영기자

아직도 술 먹고 운전하다니...

제주경찰 작년 1709건 적발... 하루 4~5건꼴

지난해 제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1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보다 37%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09건(정지 649건·취소 1060건)으로, 전년(1246건) 대비 37.2%(463건) 늘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가 맞물린 지난해 11~12월에만 331건(정지 148건·취소 183건), 하루 5.4명 꼴로 단속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보다 단속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경찰은 감염 우려가 적은 ‘복합감지기’를 지난해 도입한 바 있다. 복합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을 필요 없이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단속 건수가 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14건으로 전년(362건)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8

명으로 최근 5년(2017년 7명·2018년 2명·2019년 4명·2020년 5명)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음주사망사고 유형은 차량 단독 사고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차량에 치어 숨진 보행자도 3명에 달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한층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애월읍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알날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연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술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변이지(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수 18-2003-20-08

010-2699-2355